

농지규제 풀리면 농지감소 어떡하나

태양광발전이나 지역축제 등과 관련한 농지규제가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농가나 마을의 소득증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지감소 가속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투리 농지 등을 태양광발전용에 우선 사용하고, 농지로의 원상복구의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면적 상한이 1만㎡(3030평) 이하에서 3만㎡(9090평) 이하로 확대됐다. 농민이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는 2월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투리땅 우선사용... 우량농지는 보호해야”

농업진흥구역밖 농지 태양광설비면적 확대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 단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나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일시사용 신고 대상은 ▲농한기 설매장 목적의 3000㎡(909평) 이하 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를 위한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축수산업용 시설 부지 등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감안해 농지전용허가면적이 상향됐다.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1,000㎡(303평) 이하에서 3,000㎡ 이하로, 기숙사는 1만㎡ 이하에서 1만5,000㎡

(4540평) 이하로, 학교는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령은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주목된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가속화하고 있는 농지감소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4년 1만718ha이던 농지전용면적은 2015년 1만2,303ha,

2016년 1만4,145ha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전용면적도 해마다 2,000ha가량이나 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2016년 7%)까지 확대한다는 이 계획에 따라 농업분야는 모두 10GW를 담당해야 한다. 10GW를 발전하려면 약 1만1,000ha의 농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해 간척지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영농형 모델은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 상태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농지전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생산량이 20%(비 기준)가량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농지전용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호하고 자투리땅 등을 이용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6월 주택 체감경기 악화

전망치 64.0...5월 대비 8.1p ↓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달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지난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6월 전망치가 64.0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고 6일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지표다.

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달의 HBSI 전망치는 5월 대비 8.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와 함께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울산·거제·군산 등 일부 지역의 지역산업이 붕괴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사업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세종시만 6월 HBSI 전망치가 80선을 기록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40~70선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운영

러시아 모스크바 고리키파크...13일 추가 오픈

삼성전자가 전세계인의 축구 축제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고리키파크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선라이즈 골드 색상의 갤럭시 S9·S9+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축구를 주제로 슈퍼 슬로우모션, 듀얼 조리개 등 혁신적인 카메라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어 VR을 활용해 사용자가 실제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듯한 가상현실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개막 전인 13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갤러리아 몰에도 갤럭시 스튜디오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세계 소비자들 누구나의 이모지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 출점국별 AR 이모지를 제공한다.

/서미애 기자

제주항공, 자동탑승수속 국적사 최초 도입

제주항공(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탑승수속 절차를 개선하며 '무인수속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탑승수속 카운터 혼잡도를 낮추고 수속절차를 간소화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항시설 사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항공권 예매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탑승권을 자동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자동탑승수속'은 서비스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모바일서비스 개

선사업의 하나로 약 7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쳤다.

'자동탑승수속'을 하면 최초 좌석은 자동배정 되지만, 모바일 탑승권을 받은 후 좌석변경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좌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자동탑승수속' 서비스로 모바일 수속 편의를 높인데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이 가능한 노선도 확대했다.

'자동탑승수속'이나 '무인탑승수속' 서비스 이용시에는 자신이 직접 수하물을 맡기는 '셀프 백 드롭(Self bag drop)'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6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의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C랩을 통해 창업에 나선 3개 과제 참여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 사내벤처 3개팀 창업 지원

채소재배 솔루션·초소형 스피커·인터뷰 대상 물색 플랫폼

삼성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Creative Lab)'을 통해 발굴한 3개 우수 과제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8월 C랩 '스핀오프'(회사 분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배출된 스타트업은 34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판살림'을 차리

는 3개 팀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가정용 채소재배 솔루션을 개발한 '아그와트'(AGWART)와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한 '캐치플로우'(CATCHFLOW), 데이터 기반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주는 플랫폼을 개발한 '포메이커스'(FOR MAKERS) 등이다.

아그와트는 스마트 가전 기술을 활용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플랜트박스'를 개발했다.

소형 냉장고와 비슷한 형태로, 기르고 싶은 채소의 씨앗 캡슐을 재배기에 넣으면 씨앗의 종류에 따라 빛,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최적의 환경이 자동으로 설정돼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이상을 통해 이런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캐치플로우는 기존 지향성 스피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초소형 포터블 지향성 스피커 'S레이'(S-Ray)를 개발했다.

포메이커스는 앱 사용패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추천해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리서치 플랫폼인 '앱비'(AppBee)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또 C랩 출신으로 독립한 스타트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베이비케어 솔루션 업체인 ㈜모닛은 아기의 대소변 여부를 알려주는 기저귀 센서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팔고 있으며, 조만간 백화점으로 유통을 확대한다. 특히 유행감염병의 예방을 통해 공동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모니터바이(by) 하이스' 제품도 이달 말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향후 사업 영역을 실버 제품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간단한 허밍으로 작곡을 도와주는 앱을 개발한 ㈜클랩 컴퍼니는 미국 버클리대가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스카이덱'(SKYDECK)에 선정됐으며, 곧 현지 법인을 설립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미애 기자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1억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